

邊仁泰 說話의 意味

姜 晶 植

목 차

1. 서 론
2. 전승양상
3. 변인태의 활약
4. 변인태 설화의 구조
5. 변인태 설화의 사회적 의미
6. 결 론

1. 서 론

변인태는 서귀진의 관노였던 사람이다. 관노라면 관청에 얽매인 노예에 불과하다. 미천한 사람이니 이름이 남을 리 없다. 그러나 변인태라는 이름은 제주도 전역에 알려져 있어 사정이 사뭇 특이하다. 관노로서 이름을 남겼다고

하면 무슨 난리라도 일으켰겠거니 할 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도 않다면 그 이유를 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변인태는 관노로서 해야할 바를 하는 정상적인 인물이 아니기에 이름이 남았다.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행동을 이야기로 들어보면, 김선달의 행적과 유사한 면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김선달과 유사한 행적을 보인 인물은 정수동, 백문선, 정만서, 방학중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서민문화의 중심지 평양을 본거지로 활약한 김선달이 널리 인구에 회자되는 이야기를 남기고, 양반사회의 주변을 맴돌던 정수동, 백문선이 기록물에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반면에, 월성과 영덕을 각각 본거지로 삼던 정만서와 방학중은 최근의 설화조사와 연구발표로 겨우 소개된 처지이다.²⁾ 이들 인물군의 행적은 한군데 머물러 있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벌이는 사기행각으로 공통된다. 그러면서도 어느 특정지방을 중심으로 생활하며, 그들에 대한 이야기도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전승된다는 점이 특이한 양상이다.³⁾ 그렇다고 하면 이들 인물군의 이야기를 비교함으로써 설화 전승집단의 사고구조와 역사적 경험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뜻에서 본고에서는 제주도에도 변인태라는 유사한 인물이 있음을 소개하는 한편, 이 인물의 이야기를 분석해 봄으로써 동 유형에 대한 일반론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작업을 해두고자 한다.

1) 이러한 인물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 최원식, 鳳伊型 건달의 文學史的 的의, 李朝後期 漢文學의 再照明(서울: 創作과 批評社, 1983)
- (2) 조동일,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대구: 영남대출판부, 1979)
- (3) 조희웅, 트릭스터譚의 史의 小攷, 說話學講要(서울: 새문사, 1989)
- 2) 조동일·임재해, 구비문학대계 7-1, 2, 3 경북 경주 월성군편(성남: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1980)
- 조동일,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대구: 영남대출판부, 1979)
- 3) 정수동, 백문선은 서울, 김선달은 평양, 정만서는 월성, 방학중은 영덕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이야기도 같은 곳에서 집중적으로 전승된다.

2. 전승양상

변인태 설화는 변인태의 주 활동공간이던 서귀포를 중심으로, 제주도 전역에서 전승된다. 이미 조사보고된 자료와 새롭게 소개할 자료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안은 약칭이다.).⁴⁾

- (1) 진성기, 남국의 민담(형설출판사, 1976) [남국]
- (2) 현용준, 제주도 전설(서문당, 1976) [전설]
- (3) 제주대학 국어교육과, 학술조사보고서6(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1977)
[학술]
- (4) 제주민속문화연구회 '혼불', 제주민속문화 창간호(제주민속문화연구회
'혼불', 1980) [민속]
- (5)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1 북제주군편(성남; 한국정신문
화연구원, 1980) [대계1]
- (6)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3 서귀포시·남제주군편(성남; 한
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대계3]
- (7) 현용준·김영돈·현길언, 제주설화집성1(탐라문화연구총서2, 제주대학
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집성]
- (8) 국어교육연구회, 백록어문5(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988) [백록5]
- (9) 국어교육연구회, 백록어문7(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990) 본서 [백록]

4) (1)-(8)은 기존 채록자료이며 (9)는 이번에 새롭게 소개하는 자료이다. 이중 필자가 직접 조사에 참여해서 얻은 자료는 (8), (9)이다. (8)은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에서 묶어낸 濟州島部落誌 I (1989)에 채수록되었다.

앞의 자료를 삼화별로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순력에 나선 원을 조롱하거나, 원에 대한 수발을 게을리 한다.

- 1) 원이 관기를 대동하고 순력에 나서자 음탕함을 조롱한다.⁵⁾
- 2) 순력 나선 사또 일행의 신발 준비를 대충하고, 태형에 대비하여 웃을 두텁게 입는다.
- 3) 방석을 미리 따뜻하게 해놓지 않고 있다가 불에 그을려 내놓는다.
- 4) 방에 불을 때지 않고 계란껍질에 불을 피워 아궁이에 던져넣어 장난친다.

나. 음식타령이 심한 조방장을 골려주고 음식을 가로채어 먹는다.

- 1) 음식을 익거나 설게 하여 가로챈다. 고기가 탔다고 하면 멀리 봉화 불에 고기를 굶다.
- 2) 내장이 있는 채로 삶은 것처럼 속이고 닭을 가로 채어 먹는다.
- 3) '앗떠바리', '게두어리'라는 친구와 조방장의 식사를 가로챈다.
- 4) 나물국을 끓이라고 하자 조방장 말(나물)을 끓이겠다는 억지를 부려 그만 두게 한다.
- 5) 찜미음을 끓여오라 하자, 끓인 미음 위에 좁쌀을 뿌려 못 먹게 만들고 가로채 먹는다.

다. 조방장이 법을 어기며 가시나무로 쟁기를 만들어 성안 큰대문집에 갖다 놓으라고 하자 재주목 동헌에 갖다 받쳐 파직당하게 한다.

라. 조방장의 부인을 친정에 모셔가는 도중에 동침해 버린다.

마. 관장에게 절 반기 내기를 친구와 벌여 이긴다.

바. 목사가 백성들에게 실행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자, 변인태가 나서서 목사의 부당한 명령을 취소시킨다.

5) 조롱하는 방법은 양반들의 풍월을 흉내내는 것인데, "서넛 하늘엔 해가 곤곤 /역두형엔 좃이 곤곤", "하문혈엔 물이 곤곤/역두형은 거딱거딱 수도 아랫 밭실(마을)도 거딱거딱"이라고 읊는다.

邊仁泰 說話의 意味

- 1) 겨울에 탈(산딸기 일종)을 따오라고 하자, '새끼뺨 숫말을 보았다'는 말로 부당함을 조롱한다.
- 2) '열 발 고기'를 잡아오라고 하자, 게(蟹)를 한 마리 잡아가서 따진다.

사. 김매던 사람들(강별장)이 지나가던 변인태에게 '거짓말 한번 해 보라'고 하자 '왜선이 들어왔다는 급한 전갈을 가지고 가는 길이라 거짓말 할 여유도 없다'고 함으로써 사람들을 놀라 도망하게 한다.

아. 조방장이 변인태를 옥지에 데리고 갔다가 등에 '죽이라'는 편지를 써주며 집으로 보내니, 도중에 '작은딸 사위 삼고 집을 지어주라'고 고쳐 오히려 잘 살게 된다. 화가 난 조방장이 변인태를 강물에 던져 죽이려 하자 피를 써서 조방장을 물에 빠져 죽게 한다.⁶⁾

각 자료에 삽화가 결합되는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은 조사지역)⁷⁾

[남국] A 서귀진 변인태 : 나1, 다, 사<성산 난산>

B 서귀진 변인태 : 라<성산 신평>

[전설] C 서귀진 변인태 : 사, 라<성산 고성>

D 서귀진 변인태 : 나1<남원 태흥>

[학술] E 뺨인태 : 가4, 나2, 나5, 다, 사<표선 성읍>

F 뺨인태 : 아<표선 성읍>

[민속] G 서귀진 뺨인태 설화 : 나1, 나2, 나4, 사<성산 수산>

6) '상전을 속인 하인 앙글장글대'라는 같은 유형의 설화가 조희웅, 한국구비문학대제 1-1 서울 도봉편(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p.274에 소개되어 있다.

7) 자료에 실려 있는 순서대로 삽화를 구분 표시하였다. C, D와 E, F는 각각 제보자가 달라 따로 분리하였으며, B, M은 같은 제보자의 구연자료이나 시기적인 차이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며, I, J도 한 제보자의 것이나 삽화는 겹치지 않는 것이다.

- [대계1] H 서귀진 배인태 : 라, 나1, 사<구좌 김녕>
[대계3] I 변인태(1) : 다, 라, 사<서귀 대포>
J 변인태(2) : 나2, 나1, 가2<서귀 대포>
K 변인태(3) : 나1, 사<서귀 토평>
L 변인태(4) : 가3, 나3, 다<서귀 상호>
[집성] M 벙인태 : 가1, 나1, 다, 라, 사, 마<성산 신평>
[백록5] N 익살꾸러기 변인태 : 나2, 나1<남원 하례>
[백록7] O 벙인태 : 바1, 나2, 바2<고산 고산>

변인태는 남을 속여 넘기는 재간을 이용하여 게으름을 피우고, 음식을 가로채 먹으며, 남의 마누라를 넘보고, 자기를 시험하려는 무리를 혼내 주기도 한다. 이러한 변인태의 재간은 소문이 자자할 정도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 잘 하는 사람 혹은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을 '변인태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⁸⁾

변인태의 행동에는 관노라는 신분 때문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변인태의 행동에는 아무런 저침이 없다. 관노로서 해야 할 행동이라고는 볼 수 없는 행동을 마음대로 하고 다닌다. 목사, 조방장, 강별장 등 관리와 지배계층 인물의 행위를 비판하고, 그들이 시키는 일을 임기응변으로 거스르며, 자기의 주장을 내세운다. 관리의 잘못이 클 때에는 수단을 발휘하여 쫓아내기까지 한다.

변인태 설화를 구연하는 사람중에는 학력이 높은 사람이 많다.⁹⁾ 그들중에는 '변인태는 게으름 피우기 좋아하는 놈'이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

8) 기지가 뛰어난 인물을 이야기할 때 "변인태 같이 기지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한다. 김응렬이란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벙인태²찌 이걸이 쯤자 혼 사름"이라고 하였다.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3 서귀포시·남제주군편(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pp.266~272.

9) B와 M을 구연한 이는 이름난 한학자이며, N의 제보자도 마을에서 한학한 이로 알려진 사람이다.

람이 있는가 하면, '변인태는 임기응변이 능하고 재미있는 놈'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물에 대한 평가와는 관계없이 변인태 설화를 구연하는 데는 모두 열심이다. 이는 변인태 설화에 특별한 의미가 내재해 있음을 말해주는 현상이라고 본다.

변인태의 행위는 1) 게으르다, 2) 임기응변이 뛰어났다, 3) 관리들을 마음대로 했다는 등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1)은 변인태라는 인물에 대한 특정 구연자의 평가이며 설화문맥에서는 내세워지지 않는다. 2)는 간혹 부정적 평가의 요인이 되기도 하나 구연자가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부분이며 이야기의 중요한 흥미요소이다. 3)은 구연자가 적극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으나 설화문맥에 가장 두드러지며 모든 구연자의 레퍼토리에 포함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론할 기회를 가지기로 한다.

3. 변인태의 활약상

변인태가 한 일은 여러 가지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몇 가지로 묶어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옷사람 명령에 대한 항거, 2) 조방장의 음식 가로채기, 3) 음모 분쇄, 4) 내기 등 네 가지로 나누어 살핀다.

1) 옷사람이라 하면 목사와 조방장 등이다. 변인태가 옷사람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상사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순력에 나서면서 관기를 대동하고, 음식투정이나 하며, 근본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일을 시키면서 아랫사람과 백성을 괴롭히는 데 그대로 따를 수 없다고 맞선다. 순력에 나선 그 많은 사람의 발 크기를 어떻게 미리 재보지도 않고 신발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면서 차라리 포기하고 벌받으 준비를 한다(가-2). 법으로 채벌이 금지된 가시나무로 쟁기를 만들고, 그것을 성안까지 지고 가라고 하니 가만 들 수 없다(다). 겨울에는 나지도 않는 탈을 구해 오라거나, 열받이나 되는 고기를 잡아 오라느니 하면서 죄없는 백성을 괴롭히니 역시 가만 들 수 없다고 나

선다(바-1, 2). 부인을 천정에 보내면서도 수행하는 하인에게 정조를 잃지 않을까 쓸 데 없는 걱정을 하니, 또한 가만 있지 못한다(라). 이처럼 변인태는 상사의 명령을 여지없이 묵살하고 만다. 그런데, 상사의 명령을 묵살하는 데도 단계가 있다. 첫째는 단지 명령을 수행하지 않을 뿐 그 부당함을 표면적으로 공격하지 않는 단계이다(가-2). 둘째는 부당한 명령을 정면으로 공격하여 취소시키는 데까지 이르는 단계이다(바-1, 2). 그리고, 셋째는 면전에서 명령을 받아 들이는 양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결국은 완전한 패배에 이르게 하는 단계이다(다, 라).

2) 조방장으로 오는 사람 중에는 탄밥이건 설익은 밥이건 불평없이 먹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조방장에 대해서는 변인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잘 모신다. 그러나 밥이 익었느니 설었다느니, 고기가 탔느니 하면서 음식투정이나 하는 조방장이 오면 쫓아낼 궁리를 한다. 고기가 탔다면서 먼 불에 구라고 하자 멀리 봉화불을 향해 들고 선다(나-1). 닭을 삶아 오라. 즙미음을 쏘어 오라 하면서 귀찮게 구니, 닭속에 쌀을 넣어 내장채 삶은 것처럼 꾸미거나 미음 위에 좁쌀을 뿌려 조방장이 먹지 않고 물리게 하고는 조방장이 보는 앞에서 맛있게 먹어 치운다(나-2, 5). 뜨거운 밥상을 받고 '앗떠바리'라며 비명을 지르자 '앗떠바리'라는 친구가 밥상을 들고 나오고, 이를 본 조방장이 '계두어라'하자 '계두어리'라는 친구와 함께 먹어치운다(나-3). 나물국을 끓여 오라고 하자 나물국을 '나(조방장)+○(말)'로 억지 해석하고 조방장의 말을 끊으려한다. (나-4). 음식 시중을 들어 보고 상사가 섬길 만한 인물인가를 판단해 보고, 그렇지 못하다는 판단이 서면 이처럼 음식을 가로채 먹는 억지를 부린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수 있으면 족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잔소리 하는 것은 옷사람다운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른 뜻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하필 음식을 가로채 먹는 이야기를 즐기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만 하다. 먹는 문제가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이며, 상대적으로 풍족한 식생활을 누리는 지배층에 대한 반감이 설화문맥에 들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한편, 음식을 가로채 먹는 데도 단계가 있다. 아예 처음부

터 시중 들기를 거부하는 것이 그 첫 단계이다(나-1,4). 둘째 단계는 음식을 만들어 가기는 하되 못 먹을 것처럼 꾸며 물리면 보아란 듯이 먹어 치우는 단계이다(나-2,5). 셋째 단계는 거의 억지다시피 음식을 가로 채 먹는 단계이다.

3) 김매던 사람들이나 강별장은 변인태의 재주를 익히 들어 알고 있으면서 한번 시험해 보려다가 곤욕을 치른다(사). 하도 변인태로 말미암아 곤욕을 치르다 못한 조방장은 변인태를 죽일 음모를 꾸미나 실패한다. 실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당한다(아). 여기서 변인태는 자신에 대한 도전을 정면에서 맞받아 반격을 함으로써 승리를 쟁취하는 적극성을 보인다.

4) 내기는 이런 류의 설화에서는 으레히 보이는 것이지만 변인태 설화에서는 그리 자주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드문 내기라는 것은 관장에게 절 받기 내기라는 데서 단순한 내기라 볼 수 없게 한다. 이 내기에서 결국 관장의 절을 받아 내고 만다. 관노가 관장을 조롱하거나, 명령을 거부했다는 것도 굉장한 파격인데 절까지 받아냈다 하니 놀랍지 않을 수 없다.

이상 살펴 본 것중에서도 변인태 설화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것은 1)과 2)라고 할 수 있다. 1),2)에서는 변인태의 행동 단계가 다양하게 설화화되어 흥미를 끄는 데 기여하고 있다. 3),4) 또한 변인태 설화에서 중요한 몫을 감당한다. 왜냐하면, 1),2)에서 성취한 승리가 3),4)에서 더욱 확실해 지면서, 상대적으로 목사나 조방장의 패배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르기 때문이다.

변인태의 행위 중에는 억지도 다분하다. 그가 때때로 부당한 평가를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변인태가 어떻게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가 하는 점도 살펴 보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변인태 설화는 변인태의 행위를 어떻게 정당화하는가 하는 데 의문을 가질 때 흥미가 유지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변인태는 1)말장난, 2)속임수, 3)적극적 조작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1)의 예는 성기 형상의 지형지물에 빗대어 목사의 음탕함을 꼬집고 (가

1), 먼 불에 구라는 말을 곧이 들어 봉화불에 고기를 굶다고 우기며(나 1), 또한 '앗떠바리', '계두어라'라는 비명을 친구를 부르는 것으로 고지식하게 해석하며(나 3), 나물국을 '나물국'으로 큰 대문집을 동헌으로, 열 발 크기 고기를 '발 열개 달린 고기'로 해석함으로써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2)의 예는 음식을 못 먹을 것처럼 위장하거나(나 2.5), 길잃은 것처럼 위장하고 무서운 환경을 꾸미고(라), 거짓말 해 보라는 사람에게 '거짓말 할 여유가 없다'고 함으로써(사)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3)의 예는 1), 2)와는 달리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적극적인 속임수를 동원하는 데서 찾을 수 있는데, 편지를 위조하거나 보부상과 조방장을 속여 곤경에 빠뜨리는 '아'의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변인태의 임기응변, 변룡이라는 것도 일정한 단계가 있어 듣는 이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변인태 설화는 변인태의 행위를 다양한 방식으로 단계화함으로써 그 활약상을 드러내며, 청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이는 결코 어느 개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한편, 변인태 설화는 본래 변인태와는 아무런 관련 없이 이야기되던 설화를 받아 들이기도 하였다. '라'와 '아'는 바로 대표적인 예이며, '가 1', '나 3', '마' 등도 같은 맥락에서 거론할 수 있는 예라 할 수 있다.¹⁰⁾ 이들이 변인태 설화로 흡수되었던 것은 이미 본래의 설화가 워낙 변인태 설화와 유사 하였기 때문이라 보며, 이는 그 만큼 변인태 설화가 전승력이 강하며 흡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으리라 본다.¹¹⁾ 다른 설화를 흡수하는 방향 또한 변인태 설화의 흥미를 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10) '사'는 앞의 註6)에서 관련설화를 소개한 바 있다. '라'는 <고금소총>에서 볼 수 있다.

11) '흡인력'이란 말을 필자의 용어가 아니다. 조동일, 앞의책 p.256 참조.

4. 변인태 설화의 구조

변인태 설화의 핵심은 인물의 행위를 떠나서 설명되거나 이해될 수 없다. 그러므로, 설화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도 인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없다. 변인태는 관노이다. 관노라면 관청에서 옷사람이 시키는 심부름이나 하는 미천한 신분이다. 관청에 매여 있기에 마음대로 돌아 다닐 수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 옷사람이 시키는 일은 절대 거스를 수 없다. 그러나 변인태는 평범하게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무너뜨리는 파격적인 행동을 했기에 이야기될 수 있다.

기대하는 바

파격적인 행동

옷사람의 명령은 거절할 수 없다. …… 명령을 거스른다.

옷사람을 비판, 항거할 수 없다. …… 비판하고 항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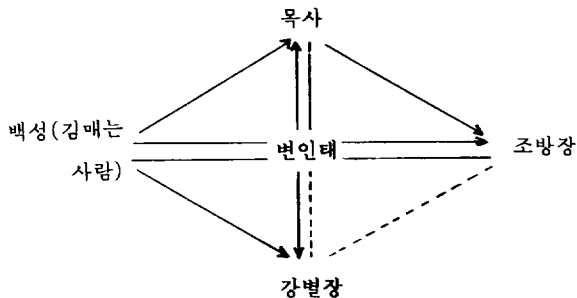
관리의 심부름꾼이다. …… 관리를 파직시킨다.

위와 같이 변인태 설화는 듣는 사람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파격을 보여줌으로써 흥미를 끌고 있다. 듣는 사람의 기대에는 신분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 관노라는 신분과 인물의 행동양식 사이의 거리가 크면 클수록 이야기의 흥미가 더할 수 있다. 즉 관노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흥미가 더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변인태와 그로부터 봉육을 당하는 사람의 신분적 격차가 크면 클수록 이야기의 흥미가 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변인태 설화에 등장하면서 변인태에게 봉육을 당하는 인물은 목사, 원, 사또, 조방장, 강별장 등인데, 이중 목사, 원, 사또는 제주 목사를 치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목사, 조방장, 강별장 등으로

줄일 수 있다. 목사는 번번이 명령이 거슬러지고 조롱을 당하며 내기의 대상으로 몰려 절을 하는 사태를 맞는다. 한편 조방장은 음식을 가로 채이고 아내의 정조를 빼앗기며, 딸과 재산은 물론 관직과 생명마저 잃는 심각한 지경에 이른다. 강별장은 강제로 동원한 일꾼들을 잃는 사태를 맞지만 그리 심각한 정도라 볼 수 없다. '사'에서는 강별장이 아닌 김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보면 우스개 소리밖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 이들 세 인물을 비교해 보면, 변인태로부터 가장 큰 곤욕을 치르는 인물은 조방장임을 알 수 있다. 조방장이 변인태의 주 공격대상이 되면서 목사보다 더 큰 곤욕을 치른다는 것은 앞에서 해 본 예상과는 다른 현상이다. 이는 조방장이 가장 들을 거리를 제공하기 쉬운 조건을 지녔으며, 조방장을 중심으로 변인태 설화가 전승되었다는 점과 맥락을 같이 하는 현상인데, 다음 절에서 더 거론할 기회를 가지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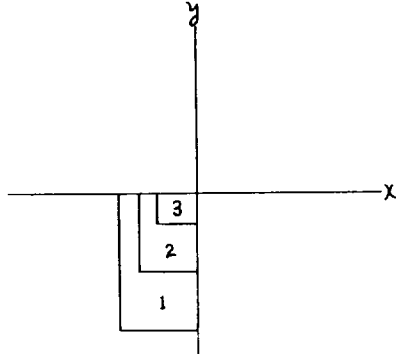
변인태의 공격 대상은 관리이며 지배계층 사람이다. 지배계층은 음탕하고, 탐욕스러우며, 사실 판단이 늦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인물들이니, 마땅히 배척해야 한다. 그러나 백성들은 힘이 없고, 그들 대신 나서는 사람도 없다. 그런데 변인태는 종종 백성들의 대변자 노릇을 한다. '바, 사'에서 대표적인 예를 볼 수 있으며, 다른 자료도 같은 맥락에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다.



변인태는 모든 인물의 중심에 위치한다. 다른 인물을 끌려 주기도 하고 도와 주기도 한다. 그가 끌려 주는 인물은 목사, 조방장, 강별장, 김매는 사람 등 대부분의 주위 인물이 해당된다. 목사, 조방장, 강별장 등 지배계층의 인물에 대해서는 단순히 끌려 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꼬집어 대가를 치르게 하거나 잘못을 뉘우치는 데까지 이르게 한다. 김매는 사람들의 경우는 지배계층에 대한 행위만큼 철저하지는 않다. 김매는 사람들은 다른 삽화에서는 지배계층에 의해 꺾박받는 백성의 모습으로 그려진다(A 사). 이러한 나약한 인물들에 대해서 변인태는 대변자를 자처하고 나선다. 변인태가 지배 계층과의 대결을 불가피하게 벌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생긴다. 목사는 제주의 행정 책임자로서 조방장을 파직시키기도 하나, 백성에 대하여 폭정을 하고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여 변인태로부터 조롱을 받게 된다. 조방장을 파직시키는 데서는 변인태, 백성과 같은 편에서 긍정적인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으나, 정사를 옳게 펴지 못하는 데서는 적대적인 편으로 몰리지 않을 수 없다. 조방장은 변인태로 말미암아 갖은 고초를 겪을 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목사에게 파직 당하기도 한다. 이처럼 조방장은 위로는 목사에게 아래로는 변인태에게 배척당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강별장은 힘없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일을 시키다가 변인태에게 저지당하는데, 강별장은 'A 사'에서만 설화화되었을 뿐 다른 예화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김매는 사람들은 변인태의 능력을 시험하려다가 봉변을 당하긴 해도 곤란한 지경에 처하지는 않으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변인태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경우도 있듯이 변인태와 같은 위치에 있는 인물군이다. 이러한 나약한 인물군은 'N 바'에서 보이듯이 목사의 폭정에 시달리는 백성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변인태는 이들의 대변자로 나서서 목사에게 대항한다.

한편 3절에서는 변인태의 행위를 다양하게 단계화하고 있음을 보았는데, 이는 목사나 조방장 등의 인물을 중심으로 볼 때 더욱 두드러진다. 변인태의 행위를 중심으로 보면 유사한 행동이 반복 나열됨으로써 해결에 이르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는데, '가'와 '나'의 예들은 대체로 여기에 속

한다. 그러나 상대인물 -특히 조방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변인태의 공격이 강력해지면서 상대방을 점차 깊은 곤경에 몰아 넣는 양상이 잘 드러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축은 변인태의 유사한 행적을 전하는 삽화들의 축이다. y축은 상대인물의 곤경이 심화되는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3은 강별장, 2는 목사의 경우를 나타낸 것이며 1은 조방장의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위에서 보듯이 다른 두 인물에 비해서 조방장에 대한 변인태의 행적을 전하는 삽화가 많고, 또한 그것들이 단순 반복 나열이라기보다 공격을 점차 심화시키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변인태 설화는 한편으로는 유사한 삽화를 여러 가지로 확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인물에 대한 공격의 정도를 다양하게 나타내는 방향으로 전승된다고 할 수 있다. 전자를 수평적인 확대라 할 수 있으며, 후자를 수직적 확장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변인태 설화의 전승구조라 볼 수 있다. 설화의 수평적 확대와 수직적 확장이라는 전승구조는 변인태 설화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라 할 수 있으니, 앞으로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변인태 설화는 변인태의 임기응변에 중점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보기에는 변인태의 행적이 미심쩍다. 왜 하필 관리들에 대한 행위를 중점적으로 설화화했는가. 2절에서도 변인태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1)계을렀다, 2)임기응변이 뛰어났다, 3)관리를 마음대로

했다는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짐을 보았는데, 2)와 3)은 변인태 설화에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하겠다. 3)과 관련되지 않은 변인태 설화의 예가 거의 없다는 점은 변인태 설화가 기본적으로 전하고자 했던 점이 무엇이었던가를 알려 준다. 2)는 3)을 전달하는 방편이라 하겠다. 표면적으로는 2)에 관심을 가지는 듯하면서 이면적으로는 3)에서 의미를 찾았던 것이다. 2)와 3)은 상호보완적인 구실을 하면서 변인태 설화의 핵심과 연결된다.¹²⁾

5. 변인태 설화의 사회적 의미

변인태 설화는 3절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다. 즉, 변인태 설화는 전승집단의 역사적 체험을 배제한 상태에서는 결코 충분한 해석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왜 하필 관노를 주인공으로 삼는 변인태 설화가 형성, 전승되게 되었는가를 우선 따져 보기로 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보기로 한다.

[자료1]

표선면 하천리에는 관노탑이 있는데 이 탑이 생기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한 때 이 지역에는 관노들이 득세를 해서 관리들이 기를 못펴고 있었다고 한다. 건디다 못한 관리들은 해결책을 강구하였는데, 풍수지리설로 볼 때 애오름이 관노들이 득세하는 요인이라 하여, 그 앞에 탑을 쌓아 기운을 막으니 관노들의 기세가 꺾이었다 하며, 이로 인해 그 탑 이름을 관노탑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¹³⁾

[자료2]

張琳이 濟州에 와서 實施한 일들은 朝廷의 方針에 따라 海賊化한 三浦倭

- 12) 이러한 양상을 조동일은 '구조의 층위'로 파악했다. 조동일, 앞의 책.
- 13) 이 내용은 "제주의 탑"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었던 것의 해당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제주 문화방송, 1989. 1. 21(토))

奴의 侵掠에서 濟州를 防禦하기 위한 使命感에서 出한 것이라 하겠으나 마침 時期가 여름철과 가을철의 가장 분망한 農繁期였고 또 年事凶作으로 島民의 大部分의 飢餓에 허덕이고 있을 때에 굶주리고 疲勞한 農民들을 徵發 動員하여 一時에 緊急히 여러 곳에 築城하고 또 烟台도 쌓고 軍用道路와 戰場地를 만들면서 民衆을 過重한 賦役에 酷使했으며 더구나 田穀을 마구 베어 내면서 道路와 戰場터틀 만들었으므로 農民들이 失農하여 島外로 移散하는 悲哀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前述한 바와 같이 公私賤 奴子들을 軍에 徵發하여 軍役に 從事시키기 까닭에 生産에 큰 支障을 招來하는 등 民怨이 자자했으며 또 지나친 긴장감을 일으키고 一方의인 無斷政策으로 民心을 恐怖와 威脅속에 몰아넣었으므로 倭賊이 侵入해 오기도 前에 民力은 쇠진하고 民生은 塗炭에 빠져 民心이 극도로 官에서 離反되었다¹⁴⁾

[자료1]에 대하여 풍수지리설이 제주도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던가를 알려주는 자료라고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관노들이 어떤 연유로 득세를 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세력이 약화된 관리들이 풍수지리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기 때문이다.

[자료2]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역사적 기록의 한 부분이다. 왜구의 빈번한 침입과 그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관노들까지 군사훈련과 싸움에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고달픈 제주 역사의 일부이면서, 관노들 편에서 볼 때는 역시 대단한 고역이었음을 알려 주는 기록이다.

위 두 자료는 일면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료2]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관노의 삶을 전해 주는 것이라면, [자료1]은 일반적인 상상을 초월하는 관노들의 힘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료2]가 사실이라면 [자료1]은 거짓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단은 역사가나 내릴 것이지 이 자리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 표면적 진술이야 어떻든 간에 두 자료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그 관련을 해명해 내는 작업을 필요로 하고 있다.

14) 金泰能, 牧使張琳의 濟州防禦施設, 濟州島史論攷(제주: 世起文化社, 1982), pp. 288~289.

먼저 사실을 표면 그대로 전달해 준다고 볼 수 있는 [자료2]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이다. [자료2]에서 볼 때 갑작스런 군사훈련과 전쟁동원으로 인하여 관리, 특히 군관들에 대한 관노들의 원성이 만만치 않았으리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노들의 원성은 그들의 신분적 제약 때문에 쉽게 드러낼 수 없었을 것은 뻔한 이치이다. 이럴 때 우회적인 방법이 강구되었고, 그것은 바로 설화를 통하여 실제 삶에서 이루지 못한 소망을 담는 방법으로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료1]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자료1]과 [자료2]는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변인태 설화는 [자료1]만으로는 전승력이 미약하고, 일반 백성들의 비슷한 의지를 담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처음에는 변인태라는 서귀진의 관노를 내세우자, 당연히 서귀진의 책임자인 조방장을 함께 끌어 들여 증점적으로 설화화하게 되었으나, 점차 지배층으로서는 대표적인 목사를 끌어 들이고 토호인 강별장을 끌어들이게 된 것도 그 결과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자 변인태는 일반백성의 대변자로 여겨지고, 그의 지배층에 대한 공격은 통쾌한 웃음과 함께 이야기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변인태 설화의 내용은 경험적 사실이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는 단지 변인태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민중의 욕구를 대변하는 이야기가 모아진 것 뿐이다.¹⁵⁾ 변인태라는 인물은 실재 인물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나, 어느 쪽이라 해도 변인태 설화는 전승집단인 민중 공유의 것이며 변인태는 그들의 다른 모습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지배층에 대한 공격이라면 대단한 일인데 관노라는 신분으로 해치울 수 있었던 것은 변인태의 기지와 임기응변 덕택이다. 변인태의 재간이야 말로 대단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반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이며, 흥미와 전승력을 유지할 수 있는 요건이다. 이처럼 민중의 지배층에 대한 항거가 웃음과 함께

15) 이러한 양상은 다른 인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조희용, 앞의 책, p. 140.

이루어진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여기에 우리 민중의 의식세계가 가장 잘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변인태의 임기응변은 이야기의 흥미를 돋우는 중요한 요소이면서, 지배층의 반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더욱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우스개 소리인 양하면서 이면적으로는 지배계층을 꼬집고 조롱하는 단순하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변인태 설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5. 결 론

변인태 설화는 제주도민의 생활사를 통해서 그 의미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변인태 설화를 통해서 제주도민의 생활사를 짐작해 볼 수 있기도 한다. 관리라는 지배계급과 왜구라는 침략세력을 양쪽에서 맞아 고된 한풀이를 해야 했던 내력이 그 속에 들어 있다. 국가나 민족적으로 볼 때, 지배계급은 같은 내부에 속해 있으면서도 실상 도민들의 편에서 있기보다는 반대쪽에서 도민을 괴롭히기 일쑤였으니, 결국 이민족인 왜구보다 더욱 밉지 않을 수 없다. 왜구의 침입을 막자고 함께 고생하는 판에 하필 서귀진의 장인 조방장을 조롱하고 파직시키며, 목사를 우습게 여기는 관노 변인태가 이야기 속의 영웅으로 등장하게 된 사연이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사를 다루는 관점에서조차 아직껏 제주도 지방관리와 아전 및 관노 그리고 일반 도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려는 시도가 없는 실정인 것으로 보인다. 자료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설화를 통해서 그 단서를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본고는 김선달형 인물의 설화가 관심을 끌고 있는 마당에 기왕 자료가 조사되어 소개된 바 있는 변인태 설화가 무시되는 사정을 시정하고, 동 설화에 대한 일반론을 전개하는 디딤돌이 되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를 두고 보면, 변

인태 설화는 미천한 신분인 관노가 지배계급을 풍자한다는 면에서는 정수동 설화와 가장 유사하며, 관노라는 신분 때문에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한다는 면에서는 동 유형과 판이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김선달형 인물이 대개 미천한 신분이긴 해도 자유인인 반면에 변인태는 관노라는 특수한 신분이어서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정수동이 조선 말기의 양반 지배사회를 비판한 것은 따지고 보면 남 못지 않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상승을 꾀할 수 없는 데 대한 반항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인물들의 행위도 다분히 사회비판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신분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관노인 변인태는 신분적으로는 상승의 기회를 아예 생각해 볼 수 없는 처지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행위는 민중의 대변자 노릇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변인태 설화를 중심으로 다루어 보고자 하였으므로 동 유형에 대한 일반론은 전개하지 않고 다음의 과제로 남겨 둔다. 아울러 변인태 설화 자료도 확대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변인태 설화를 다루어 본 결과를 미루어 본다면, 제주의 인물 전설은 본토와는 뚜렷이 구분되는 점이 있어 구체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 진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작업도 남은 과제로 정리해 둔다.

참 고 문 헌

〈資 料〉

- 국어교육연구회. 白鹿語文. 제주 : 제주대학교 국어교육연구회, 1988
 국어교육연구회. 白鹿語文. 제주 : 제주대학교 국어교육연구회, 1990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學術調查報告書 6. 제주 :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1977
 제주민속문화연구회 '혼불'. 濟州民俗文化 創刊號 '혼불' 제주 : 제주민속문화 연구회, 1980.

白鹿語文 第7輯 (1990. 2)

진성기. 南國의 民譚. 대구: 형실출판사, 1976.

현용준·김영돈. 韓國口碑文學大系 9-1 北濟州郡.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현용준·김영돈. 韓國口碑文學大系 9-3 西歸浦市·南濟州郡. 성남: 한국정신
문화연구원, 1983.

현용준·김영돈·현길언. 濟州說話集成 1. 제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論 文>

김태능. 濟州島史論攷. 제주: 세기문화사, 1982.

조동일.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 대구: 영남대출판부, 1979.

조희웅. 트릭스터譚의 史的 小考. 說話學講要. 서울: 새문사, 1989.

최원식. 鳳伊型 전달의 文學史的 意義. 李朝後期 漢文學의 再照明. 서울: 創
작과 批評社, 1983.